



법의 성경적 기초

김종철¹⁾

I. 법 -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

1. 들어가며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법학자인 도예베르트는 '법'이라는 틀로 종교개혁 사상을 재해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는 법이라는 틀이야 말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

2.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과 주어진 법³⁾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르신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른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다른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로 구분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하나님만이 자율적^{autonomous}이시고 다른 피조물은 타율적^{heteronomous}이다.

하나님 (자율성)

피조물 (타율성)

법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시며,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법의 제정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것이 옳은 것이고 그에 반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곧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안 계신다. 주권이란 명령을 내리는 자격, 자기를 제외한 모든 자를 그 명령에 복종시킬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주권만이 절대적이고 다른 주권들은 그로부터 위임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법은 언제나 주어진 것이다⁵⁾.

이러한 법의 타율성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고 인간이 자율적이 되려는 것으로 타락의 핵심이다. 선악과의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선악과를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타율적인 존재가 되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피조물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타율적인 존재, 즉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무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의 법에 종노릇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내가 스스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게 되면 인간이 자율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거짓 우상, 이데올로기⁶⁾를 가져다 놓는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이데올로기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결정하게 된다. 우상과 이데올로기는 자기가 설정한 일정한 목표에 봉사하는 것은 선이라고 규정하고 무엇이든 그 목적에 장애가 되는 것은 반역자로 규정한다.⁷⁾

이렇게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타율적인 존재이고, 법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 법은 부정적인 의미일 수 없다. 법은 우리에게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의 참된 구조structure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법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진정한 법은 자유의 속박이 아니라 조건으로 봐야한다. 법의 지배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⁸⁾

3. 하나님 주권의 보편성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법⁹⁾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지(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표하고 천(天)이란 천사들이나 국가나 가족 같은 제도들을 포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창조의 범위는 요한복음 1:13(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과 골1:15-16(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에서처럼 모든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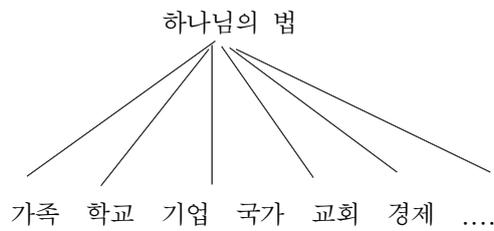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용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신다. 그는 법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물들은 그 법에 따라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된다. 법을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법은 태초부터 있었던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우주에 부과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매개자 없이 직접 그렇게 하시거나 사람의 책임 있는 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마치 통치자인 어떤 인간이 어떤 일은 자기 손으로 하고 어떤 일은 하솔들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법 지배는 비인간적인 영역에서는 직접적이고 문화와 사회 안에서는 매개적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 방식에 대응하는 법이 자연법칙¹⁰⁾과 규범이다.¹¹⁾ 이러한 그러나 자연법칙과 규범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자연법칙에는 모든 피조물이 순종할 수 밖에 없

다. 그러나 규범에 대해서는 그 수범자인 사람에게 책임이 따른다.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연법칙과는 달리 규범은 복잡하다. 거기에는 그것을 성취하도록 부름을 받은 인류가 자신의 풍부한 재능과 책임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채워야 여백이 많이 남아 있다. 떨어지는 돌은 인력법칙을 따라야 할 책임이 없고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해야 할 책임이 없다. 돌은 필연적으로 순종하고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인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비인격적인 피조물 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조와 예술의 세계, 경영과 상업까지 미친다. 인간의 문화는 그 전체가 규범 지어져 있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한계와 적절성과 표준과 기준을 발견한다.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서 일을 행하는 옳은 방식과 옳지 않은 방식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결혼제도(딤후4:3-4)나 국가 제도(롬13:1-2) 같은 것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에 적용되도록 주어진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¹²⁾ 교회나 기업체 학교 같은 현대적인 제도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된다.¹³⁾ 피조된 어느 한 영역도 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곳은 없는 것이다.



4. 토론을 위한 질문들

- 시편 1:2, 19:7-14를 읽으시오. 구약에서 끊임없이 율법의 선함을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시편 147:15-20을 읽으시오. 자연법칙과 규범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다른 종류의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시편 147:15-20을 읽으시오. 하나님은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는가?¹⁴⁾
-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규범)과 물리적인 법(법칙)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¹⁵⁾
-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규범)과 물리적인 법(법칙)을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설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¹⁶⁾

II. 법이란 무엇인가?¹⁷⁾

1. 들어가며

모든 법체계는 다음의 질문들을 연구하거나, 그에 대한 답을 최소한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법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자연인가,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법이든 마음대로 만들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속(constrain)하고 있는 법이 있는가? 법전이나 판례가 없어도 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실정법은 어떠한가 하며,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 우리는 법이란 무엇이고 법의 큰 열개는 어떠한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2. 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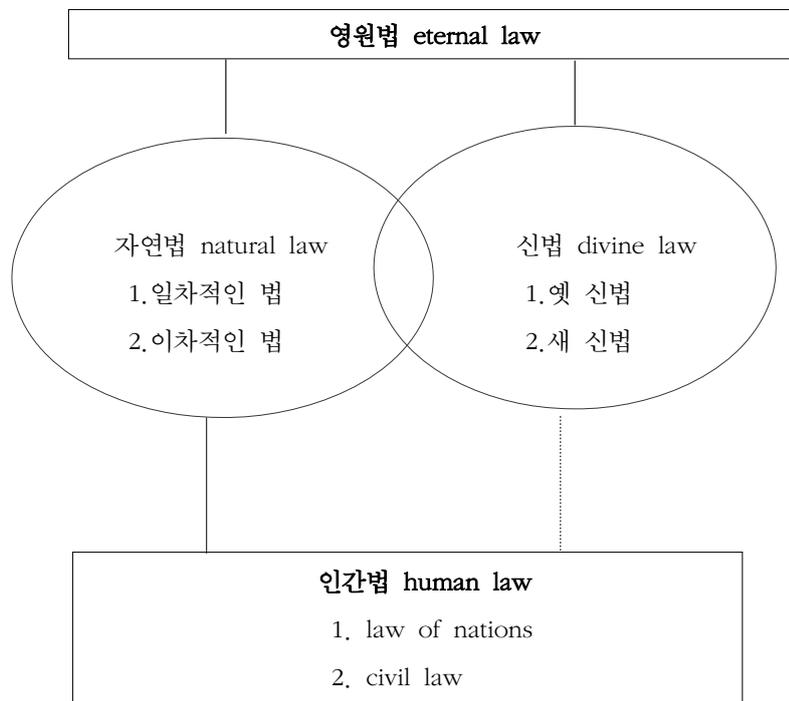
일부 근대 법학자들은 '법'은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다른 법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권자에 의해 명령된 것이 법이라고 한다. 법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이 글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과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정의를 택해서, 토론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보려고 한다.

아퀴나스는 법¹⁸⁾이란 "①공동체를 보호할 직분을 맡은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②공포된 ③공동의 선common good을 위한 ④이성적인¹⁹⁾ 규범 내지 법칙이다"라고 하였다.²⁰⁾ 아퀴나스는 '법이란 단순한 주권자의 명령 내지 의지'라는 견해를 명백히 부정하면서, 모든 법은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니라고 하였다²¹⁾. 아래에서 살펴볼 법의 체계에 나타나는 모든 법 역시 위의 4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3. 법의 체계

가. 전체의 열개

아래의 표는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법의 큰 그림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²²⁾



나. 영원법

영원법이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모든 법은 이 영원법

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해야 한다. 영원법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법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영원법 자체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영원법이 반영된 것reflection을 통해서만 영원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태양의 유비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태양sun 자체는 너무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지만, 태양빛sunshine을 통해 태양을 볼 수 있고, 그 태양 빛으로 인해 다른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법 자체는 알 수 없지만 그 반영인 자연법과 신법을 통해 영원법을 알 수 있고, 자연법과 신법이 있으므로 인간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그 권위를 궁극적으로는 영원법으로부터 부여 받는 것이다.

다. 자연법

자연법이란 영원법이 사물들의 본성에 새겨져 있고, 합리적 이성을 가진 피조물의 본성에 반영된 것으로서 피조물을 자연적인 선natural good으로 이끄는 법이다.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퀴나스는 이 자연법을 일차적인 명령과 이차적인 명령으로 구분하였다. 일차적인 명령은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도덕의 원리들"로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같은 명령들을 들 수 있다. 마치 기하학의 공리axiom 같은 것으로 그 자체는 증명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증명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²³⁾ 이차적인 명령은 일차적인 명령에서 유추된 자명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거나, 자명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라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키케로, 그로티우스, 몽테스키외, 블랙스톤, 켄트와 같은 초기 법률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분의 뜻과 법을 온 땅과 그 위에 사는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믿었다. 그러한 법은 성경의 시험을 거치거나 성경을 통해 입증된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경험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잘 관찰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소위 말하는 이러한 '자연법'은 자연과학의 영역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라,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에 관한 법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법들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바뀌거나 폐지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라. 신법

신법이란 영원법이 특별계시인 성경에 반영된 것으로서²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하나님과 화목케 만드는 법이다. 신법과 자연법의 차이점은 자연법은 피조물을 자연적인 선으로 이끄는 것인 반면, 신법에는 하나님 자신의 세상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어,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선을 넘어선 궁극적인 기쁨(초자연적인 선)으로 인도하게 한다는 점이다. 자연법은 창조 때부터 적용되어왔지만, 신법은 역사를 통해서 그 때 그 때 주어졌고, 그 법의 일부는 특정한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다.²⁵⁾ 또한 아퀴나스는 신법에는 구약에 담겨져 있는 옛 신법과 신약에 드러난 새 신법이 있다고 하면서, 옛 신법은 새 신법을 가리키고 새 신법에서 드러난 약속된 구세주에 의해 완성되므로 두개의 신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한다.

옛 신법은 ①십계명으로 압축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화를 위한 도덕적인 계율인 도덕법 ②합당한 경배를 통해 인간을 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예식법²⁶⁾ ③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와 구별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사회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²⁷⁾ 새 신법은 복음의 법으로 옛 신법을 완성

하며, 옛 신법이 약속한 것을 채운다. 새 신법에는 예배에 관한 법, 외부적 행위들에 관한 법뿐 아니라 내면생활에 관한 법들도 있어, 내면에 까지 자연과 이웃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한다.

마. 인간법²⁸⁾

인간법이란 특별한 인간 사회 상황에 맞추어 자연법을 적용한 것 내지는 구체화한 것인데, 인간법은 자연법과 맺는 관계에 따라 law of nations와 civil law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law of nations은 자연법에서 연역된 것으로, 예를 들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자연법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지 말라"라는 법을 연역하는 것이다. 한편 civil law는 자연법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즉 일반적인 것을 구체화 하는 법으로, 예를 들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자연법에 대해 "도로에서는 차가 오른 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가도록 하라"라고 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인간법과 자연법의 관계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으나, 인간법과 신법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선 인간법은 신법으로부터 유추되지 않는다. 정부의 임무는 공동체가 초자연적인 선이 아닌 자연적인 선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⁹⁾. 그러나 인간법이 신법에서 유추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법이 갖는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자연법은 물론이거니와 신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을 만들어 강제하는 경우, 그 법은 법이 아니다.

4. 토론을 위한 질문들

- 잠언 8:15은 "나를 통해서 임금들은 올바르게 통치하고 법관들은 정의롭게 재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간의 통치와 재판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한 것이 될 수 있는가?
- 영원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배후에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구속하는가?³⁰⁾
- 로마서 1:18-32, 로마서 2:14-15을 읽으시오. 계시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핑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창세기 4:1-11을 읽으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법은 없었지만,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벌을 받았다. 가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것은 무슨 법에 따른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하지도 않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가?
- 우리는 인정하고 있던 그렇지 않건 간에 법학에서는 자연법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 마5:17을 읽으시오. 옛 신법의 예와 새 신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어떻게 둘이 모순되지 않는지를 이야기 해보라.³¹⁾
- 옛 신법인 도덕법, 예식법, 사회법은 각 어떻게 새 신법과 관계를 맺는가?³²⁾
- 희년에 관한 법, 십일조에 관한 법, 가난한 사람에 대한 법, 외국인에 대한 법등과 같은 사회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 우리의 실정법에서 law of nations과 civil law의 예를 들어보라.
- 신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간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보라.

- 앞에서 살펴본 사회법, 도덕법, 의식법의 옛 신법들은 어떻게 인간법에 반영되어야 하는가?³³⁾

III. 실정법³⁴⁾

1. 들어가며

앞에서 법이란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실정법은 주어진 법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법을 정의하면서 법이란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공동체 구성원이 '선한 삶 살도록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의 목적은 시민으로 하여금 덕virtue스럽게 만드는 것, 즉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시민으로 하여금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 모두 실정법화 할 수 있는가?³⁵⁾

2. 실정법 제정의 한계?³⁶⁾

가. 실정법의 목적은 초자연적인 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목적상의 한계)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실정법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선을 얻을 수 없다. 초자연적인 선으로 이끄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인 것이다. 실정법은 신앙에 대해 협력하고 우호적이어야 하나, 교회의 역할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나. 실정법은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만 다루어야 한다(관할의 한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고,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만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정법은 감정과 생각과 신앙 등에 대해서는 명령을 해서 안 된다.

다. 실정법은 모든 악한 행동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상황의 한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 첫째는 모든 악을 제거하려다 보면 많은 선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실정법은 "더 심각한 악만을"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하고 악한 인간은 "더 큰 악을 저지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둘째는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덕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피규범자가 처한 상황과 수준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악을 금지당한 인간이 더 큰 악을 저지러 수 있을뿐더러, 그 법은 규범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다.³⁷⁾

3. 실정법 바르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 아퀴나스와 마틴 루터 킹의 입장³⁸⁾

아퀴나스는 바르지 못한 법은 완전한 의미에서 법이 아니라 법의 왜곡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악한 법은 법이 아니므로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가? 아퀴나스는 이에 관해서 법이 바르지 못한 이유를 법이 인간의 자연적인 안녕을 훼손하는 경우와 법이 인간의 초자연적인 안녕을 훼손하는 경우

로 나누어서 다르게 취급하였다.

아퀴나스는 법이 우리의 자연적인 안녕을 해하는 경우, 불순종이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나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다. 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불순종이 허용되는가? 아퀴나스는 법이 가짜라고 해서 다른 동료 시민들의 선에 대해 우리가 무심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혼란disturbance은 폭력, 무질서, 위협등을 의미하고, 걸림돌scandal은 도덕적인 유혹을 의미한다. 당신의 행동이 결백하다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악한 실정법이 우리의 자연적인 안녕을 해친다면 그 법에 대해 불순종하기 전에 위 두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교 형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실정법이 신법과 정반대로 규정되어 우리의 초자연적인 안녕을 해치는 경우, 예외 없이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왕의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법이나, 살인과 절도와 부모에 대한 불경을 명령하는 식으로 십계명을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법에는 순종하지 말아야 할 권리 뿐 아니라 의무가 있다고 한다.

현대의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 역시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부터 많은 빛을 지고 있는데, 마틴 루터 킹은 '버밍햄 감옥에서의 편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로 부터의 영향을 이야기 한 바 있다. 마틴 루터 킹은 악법에 불순종하려는 사람은 ①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②공개적으로 불순종의 이유를 밝혀야 하고, ③불순종에 따르는 법적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틴 루터 킹의 이러한 주장은 악법에 대한 불순종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아퀴나스의 염려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은 특정한 법을 불순종 할 때 그것은 법적인 정의를 세우고자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져야지, 법적인 정의에 대한 경멸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악한 실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퀴나스는 순종의 한계를 마틴 루터 킹은 불순종의 방법에 대해 강조를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왜 악한 실정법에 순종해야만 하는가?³⁹⁾ 순종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나. 악한 실정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근거

우리는 왜 법을 지키는가? 악한 법이라도 왜 지켜야 하는가?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적인 합의(혹은 국민의 대표에 의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법에 따라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13:1-2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라고 말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다.(베드로 전서 2:13-17).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정법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로마서13:1-4과 베드로전서2:13-17에도 간접적으로 나타나듯이 국가의 권위는 위임된 것이므로 실정법이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반할 경우에는 불순종할 권리 뿐 아니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들은 위 로마서13:1-4과 베드로전서2:13-17에서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22:21의 "가이사란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근거로 하나님과 가이사를 동위로 생각하거나, 위임된 권위를 절대화 하거나, 하나님의 일과 가이사의 일은 무관하므로 가이사가 시키는 일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해석한다.

그러나 마태복음22:21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가지고

하나님 == 가이사

로 볼 수 없다. 위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을 식민지배하고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 동전을 가지고 설명하신다.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신 다음,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다.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고 그 동전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가이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이사의 관계는

하나님

||

가이사

로 봐야 한다⁴⁰).

이렇게 국가를 포함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을 제정한 경우에는 그 순종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4. 토론을 위한 질문들

- 오늘날 통용되는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실정법은 인간들이 심판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실정법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하거나 피규범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실패한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라.
- 구약에서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과 "이혼증명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규범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요19:11을 읽으시오. 빌라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 요19:12-15을 읽으시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참람죄(신성모독죄)로 정죄하였고 사형에 처하려고 하였다(마26:59-66, 요19:7). 그러나 이 결국 예수님은 무슨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는가?

- 1) 전 라브리 간사, 변호사
- 2)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단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편만함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역시 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3) R. D. Henderson, Illuminating Law
- 4) 하나님 (무한성)

 피조물 (유한성)
- 5)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법은 자연으로부터 추출한 법이 아니라, 자연에 부여된 법이라고 해야 한다.
- 6)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에 많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로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 7) 이데올로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성과 세계를 재창조한다. 나름대로 죄가 흘러나오게 된 근원을 규정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의 대립 상태를 설정하며, 생명의 구속을 약속하고 고통과 희생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하우즈바르트, 현대·이상·종교, IVP, 28쪽)
- 8) 이것은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인식활동은 자율적이지 않고 이미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법의 테두리를 잘 지키는 것은 인식의 한계이지만 동시에 바른 인식을 담보하게 해주는 것이다. 잠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개혁주의자들은 종교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종교 안에 활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 9)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옮김, IVP, 25-62쪽 중에서 인용하였다.
- 10) 예를 들자면, 자연법칙은 중력의 법칙, 열역학 법칙, 광합성 법칙, 유전 법칙 등을 들 수 있다.
- 11) 우리는 이러한 자연 법칙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문화와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법, 규범에는 익숙하지 않거나 확신이 없다. 우리 규범이 법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라는 법실증주의의 세례를 받았고, 법이란 사회학적으로 그 공동체에 유익(실용적인 의미에서)이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율적인 되려고 하는 인간의 동기가 숨어 있다. 하지만 성경과 우리의 경험은 문화와 사회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법을 통해 그 영역에서도 주권을 행사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 12) 예술에도 어떤 미적 규범이 있다. 모든 예술이 다 좋은 예술이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사람을 가르치는 규범이 있다. 인간의 정서나 성에도 규범이 있다. 우리의 추리는 사고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언어는 의미론적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13) 카이퍼는 이러한 영역이 다른 것을 매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와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가진 주권sovereignty in its own sphere'라고 한 반면에 도에베르트트는 각 영역마다 나름의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법 영역law sphere'이라고 불렀다.
- 14) 눈과 추위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신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말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자연이 법이든 규범이든 그것들은 창조계 전체에 대한 그 분의 보편적인 법에 속한다.(창조, 타락, 구속, 알버트 윌터스, 양성만 옮김, IVP)
- 15) 하나님의 법은 자연에 대해서는 매개자 없이 직접 부과하시나,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의 관여를 통해 그렇게 하시고, 자연은 자연의 법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그 법에 대해 순종 할 수도 있고 불순종 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responsibility(response에서 나왔다는 점을 염두 하라)을 진다.
- 16) 법이라는 큰 범주로 묶어서 설명할 때, 자연적인 법칙에 대해서는 그 존재의 객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대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고를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은 그 성격이 매개자를 통해 인간 사회에 적용되고, 제 3 과에서 후술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정화 할 것인지에 대해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 역시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given 것이다.
- 17) Christian Legal Society가 기획한 성경공부 시리즈 중 제랄드 R. 톰슨이 지은 <법 제정자: 성경적 법철학 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Written on the Heart>, Budziszewski저, IVP를 참고하였다.
- 18) lex, 라틴어 lagare '묶다', '매다' 동사에서 나왔다.
- 19) "이성적인"이라는 말을 "합리적이고 질서가 있는"의 의미로 파악해야지, "오로지 이성의 작용에 의한"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된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이성만을 가지고 시작한 지적 체계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 된다.
- 20) 신학대전 요약, G. 달 싸소-R. 꼬지 편찬, 이재룡, 조동익, 조규만 옮김, 195p, 카톨릭대학교출판부
- 21) 하나님의 법은 계시된 말씀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비록 말씀으로서 표현되었다고 해도 그 모두가 영속적이고, 확립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자주 개인에게 특정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시기도 하시는 데. 그러한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호수아6:2-5과 사도행전10:19-23을 보라. 그러한 지시는 일반적인 법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유사하게, 하나님은 자주 특정한 죄를 지은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열왕기상21:17-26과 사도행전5:1-11을 보라. 이러한 죄는 일반적인 법을 어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심판 자체는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심판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법률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모

- 든 말씀이 다 '법'이 아니므로,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포한 모든 것이 다 '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22) 논의를 위해서 법 중에서 앞에서 살펴본 '자연법(칙)'과 아퀴나스가 말하는 소위 '죄의 법'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였다.
 - 23) 논리학의 "동시에 긍정도 부정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모순율도 이와 같다고도 할 수 있다.
 - 24) 신법은 성경에 반영된 영원법이지 성경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연법에 대한 인식을 특별 계시인 성경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다.
 - 25) 신법과 자연법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법 중에서 자연법과 공통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
 - 26) 회생제사에 관한 법이라든지, 음식에 관한 법들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식법은 장차 올 메시아의 예형(豫形) 혹은 예표(豫表)였다(앞의 G. 달 싸쑈-R. 꼬지의 책, 204p)
 - 27) 사회법에는 토지에 관한 법, 외국인에 대한 법, 가난한 자들에 대한 법, 부부 관계에 관한 법들을 예로 들 수 있다.
 - 28) 인정법(人定法)이라고도 한다(앞의 G. 달 싸쑈-R. 꼬지의 책, 198p)
 - 29) 앞의 그림에서 인간법은 자연법과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신법과는 점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 주의하라.
 - 30)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모두 강조되어야 한다.
 - 31)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회생제사에 관한 규정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32) 옛 신법의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제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새 신법에서는 폐기되었다. 도덕법은 자연법을 그 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새 신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사회법은 그 성격이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면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면이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그 정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33) 도덕법은 자연법으로 흡수되어 인간법에 반영되나, 사회법의 정신은 자연법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법을 추론하거나 구체화 할 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 34) 인정법(人定法)이라고도 한다(앞의 G. 달 싸쑈-R. 꼬지의 책, 198p)
 - 35) Budziszewski, *Written on the Heart*, IVP, 75-79쪽
 - 36) 이 물음은 도덕을 실정화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꿀 수 있다.
 - 37) 이 외에도 인권 존중의 한계와 공동체의 합의라는 한계도 생각할 수 있다(Arthur Holmes, *Ethics*, IVP, 99-106).
 - 38) 앞의 Budziszewski의 책, 80-82쪽
 - 39) 여기에는 실정법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피규범자가 처한 상황과 수준을 고려하여 제정되며, "더 심각한 악만을" 금지하기 위해 완화되어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바르지 못한 법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아퀴나스의 지적처럼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악법이라도 순종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 40) 예수와 바울, 김세윤, 두란노, 101-103쪽,